

NO.19
MARCH
2014

GEEK@

ChicChic한
남자들을 위한
스타일 매거진

GEEK JOURNAL

걸 그룹 전쟁의 이면
서울 만두 열전

MEN'S GROOMING

아무도 모르게
훈남 변신
남성용 최신 시술 5
남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자기 얼굴에 바르는
메이크업 제품

SPECIAL

프리포즈 대작전
사랑 고백의
성공률을 높이는
101가지 방법

COVER STORY

임시완
배우를 배우다

궁금했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던 질문들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들려주지
못했던 대답들

STYLE Q&A

- +바지 밑단, 종류에 따라 어떻게 얼마나 접어야 되나?
- +셔츠 깃을 얼굴형에 따라 고른다고?
-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는 게 정말 있나?
- +패턴 수트, 부담스럽지 않게 멋내려면?
- +나는 왜 모자가 안 어울릴까?
- +미드 톱 슈즈, 도대체 밑단은 어떻게?
- +수트로 멋 내다 꿀볼건이 되는 지점은?

ISSN 2287-1691 ₩3,800



03

9 772287 169053

3월 컬처 가이드

2월 말부터 3월까지 당신이 보고, 듣고, 생각해야 할 가장 근사한 것들만 모았다. 글/정재혁

MUSIC

작지만 주옥같은 새 앨범

01 <유메 ゆめ> Lamp

이들의 새 앨범을 듣다 또 울컥했다. 노스텔지어한 멜로디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흥얼거리는데 그 소산한 정서에 마음이 휘청했다. 소메야 다이요, 나가이 유스케, 사카키바라 가오리, 세 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이팝 밴드는 아마도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있는 그룹 중 하나일 것이다. 유명하든 못한 멜로디, 조출하지만 명쾌한 코드, 그리고 다양하게 변모하는 리듬과 어레인지가 부드러움 속에 강약을 조절해낸다. 그것도 매우 수려하게 말이다.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래서 울봄 아마도 가장 자주 들게 될 음반이다.



02 <It's All Right> Bet.e & Stef

대충 아무 트랙부터 틀어도 마음이 편해진다. 재즈와 보사노바, 그리고 팝을 가벼운 라틴 스타일로 노래하는 이 남녀 듀오는 캐나다 퀘벡 출신이다. 불어를 영어와 함께 쓰는 곳의 그룹답게 프렌치 감성이 가득하며, 간소하지만 구성과 조율이 탄탄한 연주 실력도 돋보인다. 캐나다 라이브 하우스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남녀며, 이번 앨범은 그들의 히트곡을 중심으로 리믹스 커버, 그리고 신곡을 두 장의 CD에 담았다. 에센스만 뽑아 모았다는 얘기가.

03 <More Than Just A Dream> Fitz & The Tantrums

힘차고 경쾌하다. 본래 레트로 스타일의 네오소울 팝을 하던 6인조 밴드인데 3년 만에 발표한 이번 앨범엔 무슨 이유에선지 꽤나 활기찬 음악을 담았다. 80년대 팝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곡이 많으며 복고풍 댄스 팝에 가까운 트랙도 자주 들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캐치한 멜로디가 탁월해 함께 춤추며 따라 부르기 좋다. 새 학기, 새 출발에 어울리는 앨범이다.



04 <오하시 트리오 스탠더드 베스트>

大橋トリオ-スタンダードベスト- 大橋トリオ- 이름은 트리오지만 3인조가 아니다. 혼자다. 노래도 좀 외로운데 그렇다고 혼자 땅 파는 듯한 침울한 음악은 아니다. 아련한 흥이 있다. 오하시 트리오는 도쿄 감성의 재치한 팝을 하는 남자인데 록과 팝, 그리고 재즈의 요소들을 필요한 것만 골라 군더더기 없이 섞어내는 재주가 좋다. 이번 앨범은 지금까지 그의 음악을 총정리하는 무려 4장 세트다. 플레이어에 걸어놓고 하루 종일 버티기에 나쁘지 않다. 적절하게 외롭고 적절하게 흥이 난다.



EXHIBITION

픽토그램으로 그린 서울

몽뚝한 선, 농밀한 컬러, 그리고 굵게 휘두른 검은 윤곽. 줄리안 오피의 작품은 꼭 문자로 그린 그림 같다. 초기에 발표한 초상화 시리즈 속 인물들은 감정이 단순하고 진하며, 그러레이션이 전혀 없는 색채의 사용은 문장 사이사이 짙어놓은 구두점 같다. 조각가로 시작해 캔버스, 나무, LED 조명 판 등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그림을 그리는 이 남자는 일상생활 속 풍경을 명확한 관점으로 생략해낸다. 다양하고 복잡한 인물의 감정과 만물의 풍경이 주저 없는 컬러와 선의 발화 속에 메시지로 형성되는 식이다. 이번엔 국제 갤러리에서의 전시를 맞아 서울 거리 연작을 몇 점 그렸는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문자 그림으로 그려낸 디지털 시대의 풍경화 같다. 이번 전시에서는 거대한 사람 머리를 형상화한 모형 작품 두 점도 만날 수 있다. 초기의 초상화 시리즈를 조각으로 옮겨놓은 듯한데 갑작스레 돌출된 덩어리가 혼란 일상을 이질적으로 변모시킨다. 문자가 사라지는 시대다. 모든 게 그저 흘러가기 십상인 디지털 시간 속에서 메시지 매개체로서 문자의 자리는 점점 열리고 있다. 하지만 줄리언 오피는 그 자리를 그림에서 포착해낸다. 흘러가던 그림이 말을 하고, 넘실대던 컬러가 메시지를 담아낸다. 별것 없는 사람과 풍경의 그림임에도 줄리언 오피의 작품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유일 것이다. 3월 23일까지 국제갤러리.

BOOK

머리가 울리는 젊은 논객의 책

<논객 시대> 노정태
논객이 논객을 정리한 책이다. 노정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훑으며 세상에 발언을 하고, 인문학적 고민과 과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강준만과 진중권, 유시민과 박노자, 그리고 김규형과 우석훈 등 사회, 정치, 과학 등 각종 분야의 대표 목소리들을 분석하며 정리한 셈이다. 지나간 시간의 담론을 통해 노정태는 현재의 과제와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개포동 김갑수 씨의 사랑> 허지웅
글 쓰고, 토크하고, 요즘엔 CF에도 출연하는 남자 허지웅의 소설이다. 술자리에서 종종 만나는 지인의 망한 연애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이건 결국 소설로 포장한 허지웅의 사랑과 삶,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발언임을 알 수 있다. 밤거리에 대한 농밀한 묘사, 그리고 다소 피폐한 인간 속살에 대한 관찰이 돋보인다. 직설적이고 날카롭지만 좀 슬픈 책이다.



가슴이 울리는 개와 사람의 책

<가나이군 かないくん> 다니카와 슌타로, 마츠모토 다이오
요즘 일본에서 난리인 책이다. 알고 지내던 친구가 죽고, 그 이후 죽음을 생각하며 떠오른 단상을 그림과 함께 적어간 책인데, 삶과 죽음에 대한 아픈 진실이 마음을 울린다. 물론 아직 번역본은 발매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림과 레이아웃, 여백으로 말하는 책이다. 그림책의 이상적인 표본으로 삼기에도 충분하다.



<개를 그리다> 정우열
트위터에선 이미 인기인 '개짤'의 주인공 소리와 퓃코의 그림 에세이다. <GEEK>에서 연애 상담 만화를 연재하기도 했던 올드독 정우열이 자신의 반려견과의 생활을 책으로 펴냈다. 개와 함께 살며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 그리고 가끔은 꽤나 아픈 기억까지 섬세하고 착한 감성으로 담아낸 이야기의 예쁘면서도 슬프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속 소리와 퓃코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다.